

우리 사회의 사계절, 경륜에 길을 묻다

종심(從心 :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을 훌쩍 넘긴 연세에도 여유와 웃음이 넘치는 청년의 열정이 느껴지는 손병두 한국광고주협회 고문을 만났다. 경제계, 교육계, 언론에 몸담으며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손 고문은 '인성(人性)'과 사회적 가치로서 '정직(正直)'을 유독 강조해온 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및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지금 다양한 분야에 몸담았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삶과 우리 사회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Q1 삼성그룹 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서강대학교 총장, KBS 이사장, 호암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시면서 기업경영, 교육, 언론 및 공익재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사회 각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신망받고 존경받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고문님을 지탱한 철학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이 두 분은 평생 '정직'을 실천하면서 사셨고, 삶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청운의 뜻을 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곳 동포들의 현상을 보고는 우선 이들을 문명한 민족으로 지도하는데 전력하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동포들에게 청결과 정직과 준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강조했지요. 지금도 캘리포니아에는 도산의 정신을 기억하는 우리 동포들과 미국 지도자들이 그 뜻을 기리고자 세운 기념관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평소 우리 경제가 선진화 되려면 정직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2009년 선종하기 전에 측근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택해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추기경님의 뜻을 잇기 위해 2010년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정직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하게 되면 서로 소통하게 되어 화합과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직이 바로 사회통합의 기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야말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본받아 서로 신뢰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Q2 전경련에서 근무하실 때 인재육성에 공을 많이 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 임호균 부회장, 한국가이드스타의 권오용 상임이사(SK 前 사장), 공병호연구소의 공병호 소장, 한영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등 일명 '손병두 키즈' 이야기도 있었는데, 함께 일했던 후배들이 "내가 인생에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직장 상사로 만난 손병두 부회장에게 다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존경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제가 인복이 많은가봐요. 상사가 유능한 부하 직원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부하 직원이 유능한 상사를 만나 일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 또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에 있어서는 엄격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는 차별 없고 애정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는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후배들이 저를 믿고 열심히 했을 뿐이죠.

제가 전경련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한 1997년에는 IMF가 터졌고, 11년 뒤인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IMF 때 많은 외국 언론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실자본주의' '부패자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보면 월가의 젊은 친구들이 파생상품을 만들면서 생긴 사건 아닙니까. 탐욕과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요. 기업이 돈을 벌어도 청부(淸富), 깨끗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패하지 않아야 시장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도덕 윤리에 기반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항상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후배들한테도 '한 순간을 넘기기 위해 내일이면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정직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66 정직이 바로 사회통합의 기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야말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본받아 서로 신뢰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99



Q3 고문님께서서는 서강대학교 총장과 숙명여대 이사장, 대학교육협의회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삼성꿈장학재단 및 호암재단 이사장을 맡아 우리나라 교육계 및 공익재단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현장에서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도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지요.

5년 가까이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소위 '문제아'들도 있었지요.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가출하곤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른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들의 부모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정직'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지요. 정직이

라는 것은 모든 사회규범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인성'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훈련시켜 줘야 합니다.

서강대에서 총장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인성'을 중시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은 힘들었지만 4년 동안 기본교양도서 230권을 필독서로 정하고 앞에서 말한 정직, 배려, 준법, 감사의 기본적 시민

〇〇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정직'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지요. 정직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규범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인성'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훈련시켜 줘야 합니다. 〇〇

의식을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저는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성 교육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입시위주의 환경, 획일적인 교육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교수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4 최근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한 고문님 외손녀 이영은 양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은양이 한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에 긍정의 힘을 전파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손녀분이 무척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영은이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한국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통학버스에 태워주지 않았던 일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곤 해서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갔더니 집앞까지 스쿨버스가 오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 선배가 에스콧까지 해주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손녀를 위해 점자 선생님을 붙여주고 큰 데스크톱을 설치해줬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니 정말 미국이란 사회는 장애인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맹아학교에 한 번 따라가 본적이 있는데, 아이들 7~8명을 선생님 한 분이 맡다보니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학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이런 식이면 그 아이들이 잠재적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만약 손녀딸도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화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미국에 가서 장애인에 대한 좋은 인프라 속에서 차별 안 받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지요.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한 척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선진 사회냐 후진 사회냐 갈립니

다.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잠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입니다.

Q5 지난달 출판하신 '부부의 사계절' 책을 읽다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님께서 '부역 문턱이 마치 38선' 인 것처럼 절대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일화였는데요. 고문님께서 2007년 폐암 투병 중이셨던 아내를 돌보기 위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직 제의를 고사하실 정도로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는데, 가사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하하. 저는 지금도 아내의 마음에 꼭 드는 남편은 아니겠지요. 2년 전 서류에 결재하는 생활을 끝내고 고문이 되어 출퇴근이 자유롭고 마침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아내가 쓴 글을 편집할 수 있게 되어 '부부의 사계절'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사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거지든 요리든 뭘 할 줄도 모르고 하려고 하면 일만 벌인다고 아내가 말리기도 하고요. 대신 아내와 많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아내가 하는 일을 보니 가사 노동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조금씩 도울려고 노력중입니다.



부부란 무엇인지 묻는 감성 에세이 '부부의 사계절'

Q6 두분 무척 사이가 좋습니다. 부부란 가까우면 서도 매우 먼 존재라고 하는데요. 고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부 생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지극히 지켜보는 ‘관조(觀照)’가 중요하지요. 부부 생활이란 것이 서로 모르던 두 사람이 인연을 가꾸며 소모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흔히들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을 ‘돌 속에 있는 걸작품을 꺼낸 것’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란 상대방 속에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 가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계절’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 보낸 1년 4계절을 표현하면서도 긴 시간 함께 인생을 걸어온 배우자와의 ‘희노애락’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매일 배우자의 새롭고 무궁무진한 모습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Q7 코로나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요,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산업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분야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일처리를 끝마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지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라이프스타일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디지털 시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지금의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인류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표준은 벌써 크게 바뀌었습니다. TV대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백화점에 가는 대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요? 스마트폰과 손가락 하나면 무엇이든 다 되는 시대입니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 100대 기업의 50% 이상은 제조업 기반이었고 탑 10위 중 8개 정도는 일본 기업이었지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저걸 본받아서 가야만 해’라며 열심히 연구하고 일했지요. 하지만 이제 2020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세계 10대 기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들의 기업이죠. 이들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혁신하며 빠르게 글로벌 시장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미래가 아니지요. 이미 시장은 혁명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기업도 비즈니스의 모든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소비 문명에 대한 이해는 물론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고, 신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K A A**

